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20 09
제 17호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그 곁에 항상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주식회사 코르웰
KORWELL CORPORATION

東一造船株式會社
DONGIL SHIPYARD CO., LTD.

(주) 코마린기자재
KOMARINE MATERIALS CO., LTD.

會長 金 成 泰

船舶修理 • 船舶新造 • 海上貨物運送 • 海運代理店 • 船舶給油 • 水產物輸出入
Shiprepairing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hipping Agent Bunker Supply Marine Products Export/Im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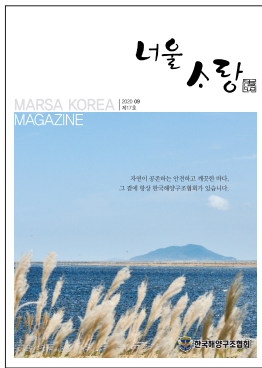
TEL.(051)200-1111 / FAX. (051)200-1188 / E-mail. kwagent@korwell.co.kr / http://www.korwell.co.kr
TEL.(051)200-1211 / FAX. (051)200-1288 / E-mail. dongil@disyar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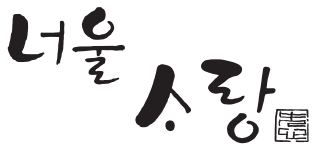
한국해양구조협회

MARSА KOREA MAGAZINE

2020 09
제 17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0년 09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중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 | |
|----------------------|---|
| Special Theme | |
| 04 | 칼럼 우리나라 해양사고 현황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_ 김명재(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대학원장) |
| 08 | 총재동정 김성태 총재,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릴레이 캠페인 참여 |
| 09 | 해송 신익교 <야망(野望)> |
| MARSА News | |
| 10 | 본부 뉴스 1) 2021년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혜택 적용기준 |
| 11 | 2) 제67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 등 수상 영예 |
| 12 | 3) 신정택 명예총재에게 협회 기동복 액자 전달 |
| 13 | 지부·지역대 뉴스 1)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
| 14 | 2) 경남서부지부, 홍도다이버 수색작업 관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
| 15 | 3) 울산지부, 「흰수리드론수색대」발대식 |
| 16 | 4) 경남동부지부, 소고도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
| 17 | 5) 충청남부지부, 보령해양경찰서와 간담회 |
| 18 | 6) 통영구조대, 통영시에 코로나19 예방물품 기탁 |
| 19 | 7) 경남서부지부,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하계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
| 20 | 8) 전북북부지부, 민·경·군 해안경계작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 21 | 9) 울산지부, 지역 단체들과 봉사를 위한 MOU체결 |
| 22 | 10) 경북특수구조대, 구룡포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체결 |
| 23 | 11) 지부·지역대 구조소식 |
| 25 | 12) 지부·지역대 훈련소식 |
| MARSА Story | |
| 28 | 지부이야기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서 대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한 부산지부 |
| 32 | 안전을 부탁해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 36 | 환경을 부탁해 태풍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선 울산지부 코로나-19 드론방역도 함께 실시 |
| MARSА Info | |
| 38 | 국내뉴스 1) 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
| 39 | 2)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 40 | 3) 올 가을 바다 위 안전·방역 모두 지킨다! |
| 42 | 4) 해양경찰청, 민간단체의 청렴한 계약 문화 확산 위해 나서 |
| 43 | 5) 해양경찰청,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해양오염 약 43% 감소 |
| 44 | 6) 바다 위의 음주운항, 이젠 인공지능 기술로 잡는다 |
| MARSА Notice | |
| 45 | 협회교육안내 1)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
| 46 | 2)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
| 47 | 3)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
| 48 | 협회후원안내 |

칼럼

우리나라 해양사고 현황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명재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대학원장

수색 및 구조활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해양사고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해상교통의 효과적인 안전감시시스템으로서 1993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포항항에 맨 처음 도입한 후 현재 전국 무역항만과 진도연안 등에 1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규정에 따라 선박의 이동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는 있으나, 소형선에는 설치 강제성이 없으므로 사고발생 시 효과적인 구조활동에 임하기가 어렵다.

본고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해양사고 통계를 기초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해양사고 발생현황에 관한 사전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안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에게도 해양사고 방지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해양사고 현황분석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영해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연평균 1,916건으로서 전체 해양사고의 약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개항 및 진입수로에서 연평균 269건이 발생하고, 부산항 및 진입수로에서 연평균 53건으로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항 및 진입수로를 제외한 영해에서는 남해, 서해, 동해 순이다.

해양사고 위치도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 항로별 발생한 순위는 평택당진항 항로, 인천항 진입항로, 가덕수로, 목포항 항로, 군산·장항항 항로 순이다.

사고유형별로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서는 부산항 제2항로, 목포항 항로, 인천항 진입항로이며 각각 4건으로 집계된다. 항로상 좌초사고는 부산항 제3항로, 안정항로, 평택당진항 항로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 제1항로에서는 접촉사고가 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5건 모두 등부표접촉사고로서 항로표지시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을 살펴보면, 운항과실은 사고원인의 77.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경계소홀이 가장 많다. 충돌사고의 원인으로는 경계소홀, 항행법규 위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좌초사고는 선위확인소홀, 경계소홀 순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시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8시이후~16시 이전까지의 주간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8시이후~12시 이전이 연평균 556건으로 가장 많으며, 12시이후~16시이전이 평균 507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의 선종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이 총 12,326척 중 8,396척으로 사고선박의 68%를 차지하고, 충돌사고의 경우 어선이 1순위이며 다음으로 화물선으로 집계된다. 좌초사고의 경우 어선 다음으로 기타선이 많으나, 수상레저기구가 2017년에 기타선에서 분리된 것을 고려하여 2017~2018년 좌초사고선박척수를 비교하면 수상레저기구가 기타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형선의 경우 최근 5년간 어선세력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톤수는 585,233톤에서 539,018톤으로, 척수는 68,417척에서 65,906척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어선척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이며, 연도별 톤수는 2017년에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다. 최근 5년간 레저선박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신규등록대수는 2017년에 2,876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해인 2018년에는 대폭 감소하였다.

조종면허 신규취득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2017년보다 취득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증가하였으며, 레저선박의 신규 등록현황과 조종면허 신규취득현황은 누적되므로, 레저선박의 등



칼럼

목적수와 조종면허 보유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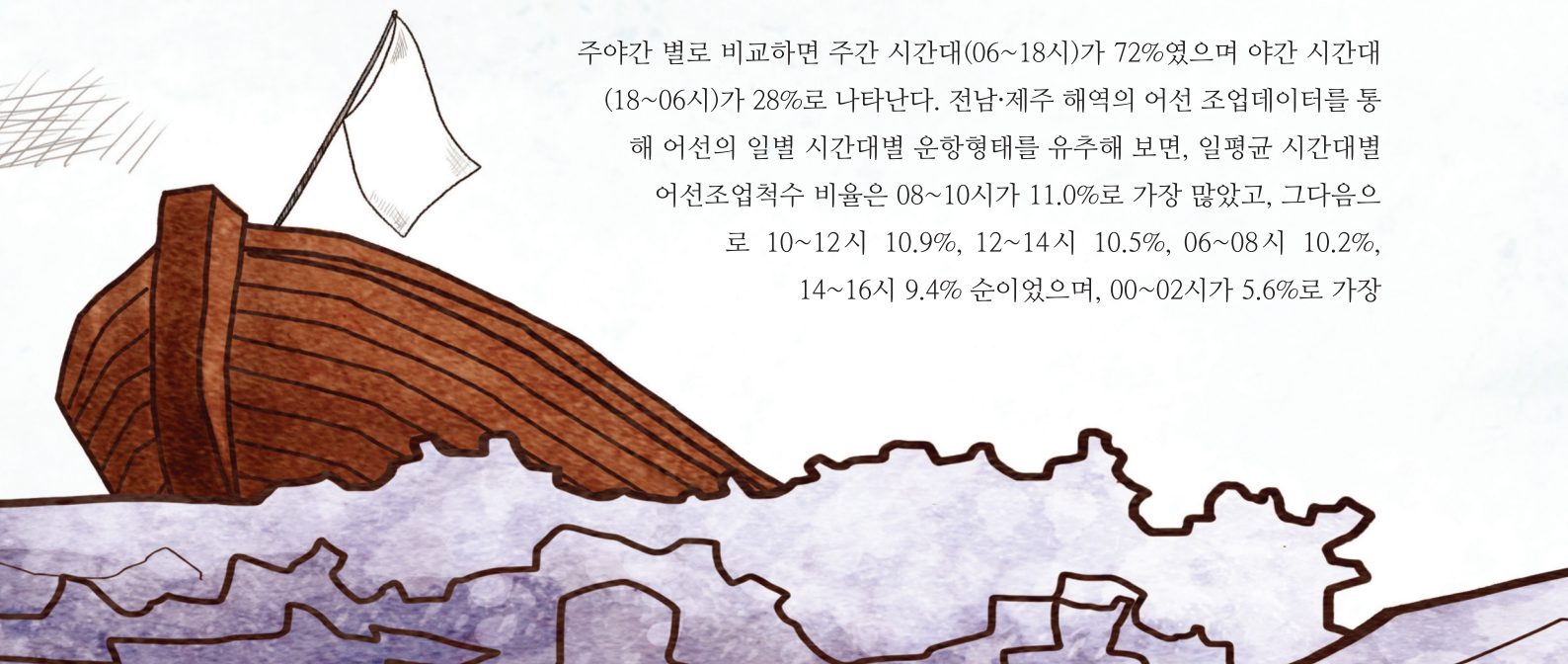
최근 5년간 항로별 소형선박 사고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항로는 가덕수로이며, 인천항 진입항로, 평택당진항 항로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항로는 목포항 항로로 4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항 제2항로에서 3건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항로상 좌초사고는 안정항로와 평택당진항 항로에서 1건씩 발생하였으며, 레저선박의 항로상 사고는 거제도 북방 해역의 마산청 관할 항로들이 교차하는 지점과, 평택당진항 진입수로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선종별 소형선박 사고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소형선박 사고선박척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어선과 레저선박 사고척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낚시어선은 2017년에 209척에서 266척으로 증가하는 반면, 2018년에는 245척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4년간 소형선박 사고선박척수는 영해에서 가장 많으며, 항계 내, 영해-EEZ 순으로 나타난다.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은 영해, 항계 내, 협수로 순으로 사고선박척수가 많으며, 어선은 영해, 항계 내, 영해-EEZ 순으로 사고선박척수가 많이 나타나고, 최근 4년간 소형선박사고의 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운항부주의, 관리소홀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4년간 소형선박 사고선박척수는 야간 시간대보다 주간에 상대적으로 많으며, 09~12시에 사고선박척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12~15시, 06~09시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레저선박의 사고선박척수는 09~18시, 어선은 06~12시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항로의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 중 소형선박의 시간대별 통과비율을 살펴보면 09~10시가 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11시 7.9%, 06~07시 7.7%, 14~15시 6.7%, 08~09시 6.3% 순이었으며, 22~23시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소형선박의 시간대별 사고현황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야간 별로 비교하면 주간 시간대(06~18시)가 72%였으며 야간 시간대(18~06시)가 28%로 나타난다. 전남·제주 해역의 어선 조업데이터를 통해 어선의 일별 시간대별 운항형태를 유추해 보면, 일평균 시간대별 어선조업척수 비율은 08~10시가 11.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12시 10.9%, 12~14시 10.5%, 06~08시 10.2%, 14~16시 9.4% 순이었으며, 00~02시가 5.6%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어선의 시간대별 항적과 비교하면 05시대부터 항·포구에서 해상으로 이동하는 선박들이 많아지고 주간에도 조업의 피크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전에 통항량과 사고가 많은 이유는 야간 조업을 하고 아침에 입항하는 패턴이 많은 것과 밤샘 작업으로 인한 피로와 입항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야간 조업의 경우 대상선종, 어구 및 어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GICOMS 데이터로는 관련 분석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레저선박의 경우 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GICOMS 데이터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2. 시사점 및 개선방향

이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양사고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구조협회’와 일선 ‘해양경찰파출소’의 역할이 강조되는 소형선박의 증가와 함께 이들 선박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레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레저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형선박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로별 소형선박사고 분석 결과, 가덕수로와 평택당진항 항로, 인천항 진입항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다른 항로에 비해 가덕수로와 평택당진항 항로 인근 해역에서 레저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해역별 사고 분석 결과, 영해, 항계내, 영해-EEZ 순으로 사고선박척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항량이 많고,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해역에서는 주의 통항이 필요하므로 위험해역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각종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식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을 얻을 수 있다.

소형선박의 사고 원인으로서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관리소홀 순으로 사고선박척수가 많으므로, 소형선박의 정기적인 정비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무정비교육 실시, 노후선 집중검사 및 소형선박 정기검사, 캠페인 활동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소형선박 사고가 야간보다 주간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레저선박은 09~18시, 어선은 06~12시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어선 종사자 교육을 통한 사고취약시간대 홍보 및 위험의식 고취, 주간 시간대에 소형선박 운항자의 위험장애물 인지 후 회피가 용이하도록 항행안전시설물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재동정

김성태 총재,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릴레이 캠페인 참여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스테이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도 참여...



▲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캠페인



▲ ‘스테이스트롱’ 캠페인

우리협회 김성태 총재가 지난 8월 20일,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구명조끼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5일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최근 3년간 방파제 등 연안 해안가 사망자 368명 중 91.3%가 구명조끼 미착용자라는 점에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손가락으로 Life Jacket의 약자를 표현하는 손동작을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된다.

김성태 총재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주자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정연송 조합장 등을 지목하여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 9월 3일, 김성태 총재는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의 지목을 받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스테이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성태 총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위기상황에서도 어렵게 봉사하시는 회원분들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및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하였다.

야망 野望



해송 신익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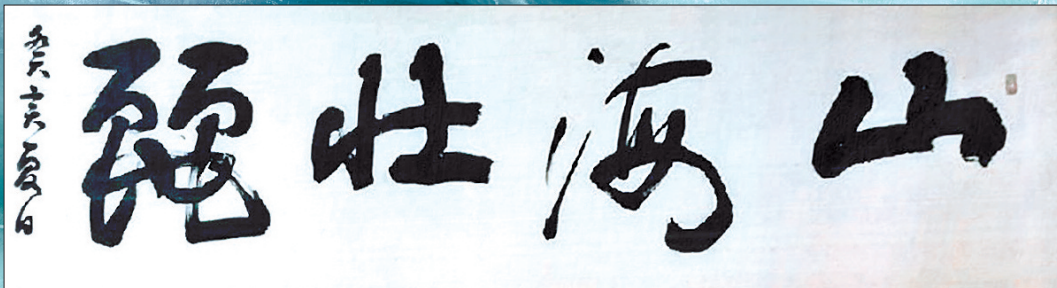
대대로 이은 전통 뿌리 내린 두메산골
 청아공 靑芽公 산해장려 山海壯麗 도도한 필력이라
 일획을 끄은 필력에 봄 햇살이 펼치고.

해금 海禁에 받은 상처 유수 流水에 등을 펴고
 풀피리 보릿고개 해농 海農단지 짙은 도장
 바다에 해양 발자취, 짹짹 짙는 뱃고동.

수평선 저 파도를 넘나들기 몇몇 해인가
 세월은 말이 없네 출렁출렁 저 물결
 거북선 잠수함 건조 망치소리 듣는가.

※청 아 공: 신용옥(辛容玉선생의 호)

※산해장려: 산과 바다는 화려하고 장엄하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날 길 해양개척)



2021년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혜택 적용기준

- 2020년 12월 말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해야 -

금년 2월, 해양경찰청은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피복 지급에 필요한 6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최초로 확보하였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상기 복지에산은 공모절차를 거쳐 금년 3월 30일 우리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우리협회 주관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기사업은 구조대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기동복) 지원과 해양사고와 관련된 구조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도 최초로 복지혜택을 받게되는 인원은 총 4,365명이며 2019년 말 기준 관할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대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2020년 8월 10일 기준 협회 대원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미등록된 자는 전체 42.7%로 절반 가까운 1,93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본회에서는 이어지는 2021년도 사업 시 협회 대원 모두가 상기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부 및 지역대를 통해 미등록자의 등록을 홍보·권유하고 있다. 보다 많은 등록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 보험계약 및 보장내용 민간해양구조대원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실손가입자 |
|-------------------------|--|------------------------|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망 |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 | 5천만원 |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 | 상해로 인한 장해 시 (100~3%) | 5천만원 |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입원비 | 상해로 입원 시 입원 1일당 (180일 한도) | 1일당 3만원 |
| 자원봉사활동 중 배상책임 | 활동 중 제3자의 신체/재물상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 입원의료비 | 1천만원 한도 |
| | 외래의료비 | 20만원 한도 |
| |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

▲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요약)



제67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 등 수상 영예

- 대통령표창(단체1, 개인2), 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 -



▲ 장흥구조대 대통령 표창 수여식
(완도해양경찰서)



▲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대통령
표창 수여식(포항해양경찰서)



▲ 서귀포지부 이승훈 사무국장 대통령
표창 수여식(서귀포해양경찰서)



▲ 경기충남북부지부 배금란 협회장 국
무총리 표창 수여식(평택해양경찰서)

지난 9월 10일, 우리협회 지부·지역대는 제67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해양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해양안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큰 전남남부지부 장흥구
조대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서
귀포지부 이승훈 사무국장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충남
북부지부 배금란 협회장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협회 소속 구조대 최초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은 장흥구
조대는 매일 군내 항·포구 야간순찰을 진행하며 사고 발
생시 즉시 출동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더 큰 피해
를 막으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은 경북지부 초대 협회장으로 현
재 6개 구조·구난대와 607명의 대원들을 영입하여 광활
한 동해해역 안전사고에 행정·재정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
으며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해양사고에 직접 투입

되어 인명을 구조했던 실적도 수차례다.

서귀포지부 이승훈 사무국장은 청정한 제주바다를 지키
며 해양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서귀포 지부 소속 구조대와
지부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행정지원에 몰심양
면으로 나서고 있다.

배금란 경기충남북부지부 협회장은 현재 최초이자 홍일점
인 여성 협회장으로서 2019년 6월 26일 취임하여 서해바다
에서 활동하는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기·충남의 민간해양구
조세력을 협회로 일원화시키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제67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각 관할 해경서에서 최소인원만
모여 진행되었다.

신정택 명예총재에게 협회 기동복 액자 전달

지난 8월 31일, 부산 영도 목장원에서는 지난 7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를 잘 이끌고 협회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민간해양구조세력 일원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신정택 명예총재에게 기동복 전달식이 있었다.



▲ (왼쪽부터)이광진 부산해경서장, 구자영 남해해경청장, 신정택 명예총재, 김성태 총재, 민홍기 이사장 ▲ 기동복 액자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태 총재,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자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협회 창립 후 4대까지 역임한 신정택 총재는 창립 초기 2천명의 회원으로 시작했던 협회가 2만여 명 돌파를 목전에 두기까지 다양한 발자취를 남기며 협회발전에 기여해 왔다.

금번 전달식에서는 그동안 협회 총재를 역임하면서 몸소 착용해왔던 기동복을 영원히 보관·기념할 수 있도록 액자로 표구하여 전달하였다.

“협회 총재로 역임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처럼 뜻깊은 선물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구조협회가 더욱 힘찬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충청남부지부 보령봉사대는 지난 9월 10일, 제67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대천해양파출소에서 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축소된 이번 행사에는 김미경 보령봉사대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보령봉사대는 보령시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0가구를 선정하여 연탄, 식자재, 생필품, 김장김치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50가구 중에는 도서지역과 어촌에 위치한 어민가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해양봉사단체로서의 의미를 더하였다.



▲ (왼쪽에서 두 번째)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 (왼쪽에서 세 번째) 김미경 보령봉사대장

앞서 지난 7월 20일부터 3일간, 보령봉사대는 어민가족인 독거노인의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였다. 대천2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보령봉사대에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 23명의 대원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청소만 해당라는 의뢰였지만 집안 내부 상태가 심각함에 따라 김미경 보령봉사대장이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여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대대적인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훈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집안 내부 청소 및 수리 중인 보령봉사대원들

경남서부특수구조대, 진주사천구조대

경남서부지부, 홍도 다이버 수색작업 관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 김평한 서장이
경남서부지부 대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경남서부지부 김태정 협회장 및 대원들은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지난 6월 6일, 통영 한산면 홍도 해상동굴 내부에서 고립된 남녀 다이버 2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통영해경서 소속 정호중 경장(추서)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일 구조를 위해 해양경찰은 물론 민간 다이버들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1차로 경남서부지부 김태정 협회장과 경남서부특수구조대원(정대성, 배민선, 김정훈)이 투입되었다.

구조과정에서 정호중 경장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기상 악화로 아침까지 기다린 후 수색을 재개했으며 2차로 진주사천구조대 이진상 대장 및 대원(윤병기, 권창주, 문효진)이 투입되었고 수색 과정에서 실종된 정호중 경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시상은 열악한 기상상황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직접 구조대원으로 참여한 경남서부지부 협회장 외 7명의 대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김평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이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울산지부, 「흰수리드론수색대」 발대식



▶ 드론과 함께 기념촬영

지난 7월 31일, 우리협회 울산지부는 울산해양경찰서 대강당에서 흰수리드론수색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부 최영목 협회장을 비롯하여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 경비구조과장, 울산시 재난전문 봉사단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축하하였다.

흰수리드론수색대는 드론 운영자격증을 보유한 4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울산해양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을 활용한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수색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지부 최영목 협회장은 “그동안 드론에 관심이 많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른 대처의 한가지 방법으로써 울산에서 드론수색대를 발대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흰수리드론수색대는 울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완벽한 구조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민·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동부지부, 소고도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경남동부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 소고도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였다.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소재한 소고도는 무인도로서 가족 단위 피서객 및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며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창원구조대(72명), 마산구조대(87명), 경남동부특수구조대(82명) 등 총 241명이 참여하여 피서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 권장, 물놀이 사고 시 응급처치 활동, 해양정화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 소고도 하계 인명구조센터

7월 중순부터 지속된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해 피서객들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있어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에는 수상오토바이, 안전관리 선박, 구조용 잠수장비, 통신기, 망원경, 응급처치 구급상자 등을 구비하였으며 200개의 구명조끼를 피서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이번 센터를 운영하면서 낚시객 중 폭우로 인해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하여 구조하였으며 70여건의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하여 치료하였다. 또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유해성 해파리 제거작업 50회, 해양정화작업 60회 가량 진행함으로써 해양봉사단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부상자 응급처치 중



▲ 해양환경정화작업



충청남부지부, 보령해양경찰서와 간담회



▲ 충청남부지부, 보령해양경찰서 간담회 현장

지난 8월 20일, 우리협회 충청남부지부는 서완봉 협회장 및 12개 지역대장들과 함께 보령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지난 8월 12일, 협회장과 12개 지역대장들이 자체적으로 1차 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금번에는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과의 지역 현안 문제해결 및 해경과의 공조 협업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완봉 협회장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조구난 어선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선 표지판 등을 제작하여 어선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이어 성대훈 보령해경서장은 협회 회원들의 안전 담보를 위한 보험가입을 본청에 적극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오픈하여 상호기관의 공동협업 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충청남부지부는 해양봉사를 위해 보령해양경찰과 함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훈련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서고 있다.

통영구조대, 통영시에 코로나19 예방 물품 기탁



▲ (왼쪽에서 3번째) 조창국 통영구조대장이 물품 전달 후 (왼쪽에서 4번째)강석주 통영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통영구조대는 통영시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물품인 손소독제(500ml) 120개와 KF94마스크 250매를 기탁하였다.

조창국 통영구조대장은 “주변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눈다”며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천을 약속하였다.

이어 강석주 통영시장은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기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의 봉사정신이 이웃들에게 큰힘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통영구조대는 사회복지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새해 떡국 나눔, 명절맞이 물품나눔, 장애인 동행 문화체험행사, 사회복지시설 대상 응급처치와 소화기 안전 교육 등 해양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이웃돕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남서부지부,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하계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 수상레저활동 후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경남서부지부



지난 8월 18일, 경남서부지부는 통영시 그룹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룹홈(Group Home)은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보호자와 함께 가정형태를 구성하여 일상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공동가정생활 보호시설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여름철 레저스포츠활동을 통해 활동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 7월 6일, 경남서부지부에서 사랑을 담은 통닭 100마리를 통영시 각 그룹홈 7곳에 전달 하면서 시작되었다.

경남서부지부는 금번 하계 멘토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동계 스포츠 활동 등을 기획하면서 지역 사회의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전북북부지부, 민·경·군 해안경계작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지난 8월 11일,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는 군산해양경찰서와 육군 제35보병사단 총무연대와 함께 민·경·군 해안경계작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 (왼쪽부터)
김상겸 전북북부협회장,
배진현 육군35사단 총무연대장,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겸 전북북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하여 신철원 스마트해양드론순찰 대장,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 배진현 육군 35사단 총무연대장 등이 참석하였다.

본 협약은 해안가 곳곳에 설치된 장비와 항공감시 기능을 결합하여 더욱더 촘촘하게 해안을 경계하기 위해서 해양 감시 장비와 인력을 상호간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최근 고군산 연결 교량에서 자살 시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살 의심자가 포착될 경우 해경과 군이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금번 협약식을 통해 군산 인근 해상을 통한 국제성 범죄와 해양사고 등의 감시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지부, 지역 단체들과 봉사를 위한 MOU체결

지난 7월 31일, 울산지부는 국제라이온스 355-D(울산·양산)지구 8지역과 함께 MOU를 체결하였다.

국제라이온스협회(Lions Club International)는 215개국 48,298단위 조직과 1,429,665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 국제봉사단체이다.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에 나서고 있는 국제라이온스 355-D지구는 금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부 해양정화활동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제라이온스 355-D(울산·양산)지구 8지역과 함께 MOU체결 기념사진

또한 울산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전어촌계, 8월 5일 우가어촌계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울산해역에서 일어나는 해양사고 수색, 구조, 구난, 환경 보호 등 활동과 관련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해양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어촌계와의 협약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울산지부는 지역 단체들과 해양봉사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우가어촌계와 MOU체결



▲ 제전어촌계와 MOU체결

경북특수구조대, 구룡포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체결



◀ (왼쪽에서 세 번째)박시현 원장,
(왼쪽에서 네 번째) 황승욱 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경북특수구조대는 포항시청소년재단 구룡포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 및 대원과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박시현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번 체결식은 청소년 해양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경북특수구조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에 있다.

협약내용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한 운영 컨설팅 △해양안전 관련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해양활동 안전지도 및 교육참여(강사, 특강 등) △해양활동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 및 홍보 등이다.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지부 · 지역대 구조소식

| 경북지부, 포항시 도구 해수욕장 실종자 수색



▲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는 경북지부 소속 대원들

지난 8월 21일, 낮 12시 42분께 포항시 남구 도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던 일행 7명 중 2명이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자 이들 중 3명이 구조를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근 서핑객에 의해 4명은 구조되었으나 10대 1명이 실종되어 포항해양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사고로 우리협회 경북지부는 포항해경서의 협조 요청을 받고 포항구조대, 경북특수구조대 등 20명의 전문 잠수인력이 투입되어 3일간 총 60명의 대원들이 수색작업에 동원되었다.

사고 해역중심으로 군·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집중 수색작업을 3일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실종자는 23일 오후 4시 28분께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앞 200m 수중에서 발견되었다.

| 전남서부지부, 금동선착장 실종자 수색 - 우승조선소 실종자 수색에도 참여...

지난 8월 27일, 우리협회 전남서부지부는 금동 선착장에서 어선을 정박하는 과정에서 배가 떠내려가자 배를 붙잡기 위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선장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목포해양경찰과 함께 수색작업을 진행한 전남서부지부는 장재구 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전문 잠수 인력이 투입되어 구조활동에 나섰다. 실종자는 출동한 지 한 시간 후인 오후 1시경에 인근에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



▲ 우승조선소에서 실종자 수색중인 전남서부지부 대원들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앞서 전남서부지부는 지난 7월 31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대불부두 우승조선소에서 선박 상가 수리를 하던 선원 한명이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수색 지원에 나섰다.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개방으로 실종자가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물 300미터 설치 후 우승조선소 추락발생 장소에서 인근해역까지 수중수색을 진행했으나 수색당일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며칠 후 목포여객터미널 근처에서 실종자가 떠오르면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

| 서울지부, 실미도 해수욕장 고립자 구조



▲ 고립된 관광객을 구조하러 가고 있는 서울지부 대원들

지난 8월 23일, 실미도 해수욕장에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관광을 즐기던 외국인 4명이 만조 시간까지 밖으로 미처 나오지 못해 고립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는 서울지부 소속 명유천 영등포구조대장과 김경수 용산구조대장, 강인철 성동구조대장, 이서현 대원 등이 해수욕장 안전근무 중에 발생하였으며 패들보트와 레स्क튜브를 이용하여 즉시 고립자들을 구조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경남동부지부, 진해루 앞 실종자 수색

지난 8월 10일, 6시 50분경 진해루(진해파출소 옆 해안도로) 인근 육상에서 실종 추정자의 소지품(가방, 옷, 신발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아침운동을 하던 주민이 이상한 낱새를 느껴 신고하는 사고가 있었다.

창원해양경찰서로부터 수색지원 요청을 받은 경남동부지부는 유남석 창원구조대장 및 대원 6명과 전승윤 경남동부특수구조대장 및 대원 2명이 수중수색에 투입되었다. 수색활동에는 대원들의 잠수장비 및 선박 3척이 함께 동원되었다.



▲ 수색을 위한 잠수준비를 하고 있는 경남동부지부 대원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수색작업은 오후 5시가 되어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지부 · 지역대 훈련소식

| 전북북부지부 스마트해양드론순찰대, 민 · 관 합동 특수구조 목적 해양드론 훈련 실시

지난 7월 22일부터 이틀간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 스마트해양드론순찰대는 보령해양경찰서와 함께 민 · 관 합동 특수구조 목적 해양드론 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국종 소장(앞줄 오른쪽 2번째), 전북북부지부 신철원 대장(오른쪽 4번째)이 함께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 드론을 활용한 훈련모습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훈련은 해상 드론 순찰 중 돌발 익수자 구조 훈련과 해상 침투 밀입국 선박 드론 감시 훈련, 도서 지역 원격 의료지원 훈련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국종 아주 대학병원 외상연구 소장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전북북부지부 스마트해양드론순찰대는 총 12대의 수중, 방수 드론을 투입하였으며 바다에 빠진 사람 1명을 발견하고 성인 남자 4명이 매달릴 수 있는 튜브를 드론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어 대천항 테트라포드에 있는 낚시객이 밀물로 고립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것 역시 드론의 몫으로 훈련을 진행하면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장상황에 맞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배터리 드론의 가장 큰 약점인 체공시간 및 운행거리를 몇 배나 확장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소드론이 국내 처음으로 훈련에 투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으며 보령시청, 부산소방, 육군8361부대, 해군 등이 함께 참관하면서 전국적인 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북지부 2020년 3분기 수난 대비 민 · 관 · 군 합동 수색구조 훈련

지난 8월 19일, 경북지부는 포항시 북구 여남갑 동쪽 6km 해상에서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인명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민 · 관 · 군 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에 동참하였다.

금번 훈련에는 포항해경과 포항시청, 해군 등 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함선 10척, 헬기 1대가 투입되었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다. 경북지부에서는 정재완 포항구조대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 잠수대원들이 참여하였다. 훈련은 풍랑 예비 특보 발표 후 피항을 위해 입항 중이던 어선이 상선과 충돌 후 침몰, 또 다른 어선은 높은 파도에 전복되는 등 복합상황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세력별 인명구조에 역점을 두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함과 동시에 대응세력의 출동 및 도착시간을 점검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구조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강도를 높였다.



▲ 훈련모습

경북지부는 민·관 합동훈련 뿐만아니라 대원들 자체 잠수 훈련 등 구조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대원들의 개인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 울산지부, 울산해양경찰과 민·관 합동 수중수색구조 훈련 실시

지난 7월 18일, 우리협회 울산지부는 울산해양경찰과 함께 울산시 남방파제에서 민·관 합동 수중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 수중수색구조 훈련 중인 울산지부 소속 대원 및 울산해양경찰

금번 훈련은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적 사고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완벽한 수중수색 기법 숙달, 수중탐색,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수색 및 작동법 숙달 등을 토대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번 훈련에는 울산지부에서 발대하한 흰수리드론수색대가 함께 참여하면서 연안 위험구역, 방파제, 사각지대 등 광범위한 구역 수색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작동방법 등을 숙지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하였다.

훈련에 참석한 울산지부 최주평 사무국장은 “해양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드론을 활용한 수색방법을 도입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한 바다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경남서부지부, 야간 실종자 수색 자체훈련

지난 8월 7일, 경남서부지부는 죽림해수욕장에서 야간 실종자 수색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김태정 협회장을 비롯하여 20명의 전문 잠수대원들이 함께하였다.



▲ 죽림해수욕장에서 야간수색훈련중인 경남서부지부 대원들

훈련은 마네킹을 미리 바닷속에 던져놓은 뒤 라인을 찾아서 대원들이 마네킹을 찾는 훈련으로 실제 실종자 발생 시 야간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잦음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또한 야간수색작업은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 됨에 따라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럿 발생할 수 있기에 금번 훈련을 통해 현장 투입 시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구조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실종자 수색 훈련은 매월 1회씩 죽림해수욕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입회원부터 경험이 많은 대원들까지 함께 훈련함으로써 서로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 경기충남북부지부, 평택해양경찰구조대와 민·관 합동훈련

지난 8월 14일, 경기충남북부지부는 평택해양경찰구조대와 함께 민·관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제부도 앞바다에서 진행된 훈련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최정예 잠수대원들만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총 22명의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 및 평택해양경찰이 참여하였다.

금번 훈련은 운항중인 선박에서 추락한 사람을 가정하여 지부 구조대원들과 해경이 협업하여 구조하는 훈련으로 잠수기술 공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상호 협업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또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대원이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며 직접 시연을 함으로써 좀 더 바다에서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부도 앞바다에서 훈련중인 경기충남북부지부 대원들

지부이야기 _부산지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서 대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한 부산지부

우수한 지정학적 입지와 자연요건을 갖춘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상업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부산항의 보조항인 감천항과 충무동 및 남부민동 사이에 있는 부산남항 등 명실상부 항만의 도시로 성장하여 동북아시아 중심 항만으로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에는 이처럼 대형 항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항포구들도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다. 크기는 세계적인 항만이라는 명성과 함께 작게는 옛 정취가 묻어나는 항포구가 60여개나 있어 이곳에서도 부산의 활기가 퍼덕거린다.

이처럼 동북아 해양수도라 불리는 부산에서 우리협회 부산지부는 오늘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양도시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바다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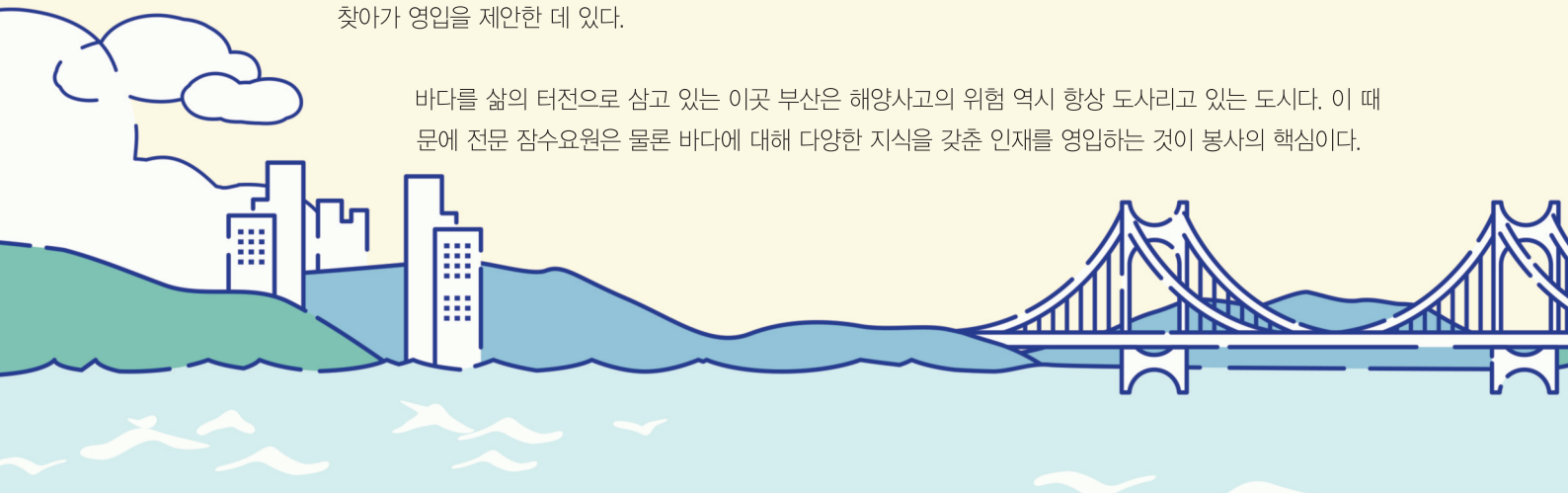
광활한 해역을 지키기 위해 인재영입에 나선 부산지부



▲ 2017년 10월 25일, 해운대구조대 · 민간해양구조대 · 여성봉사대 · 전의경봉사대 발대식

협회 창립과 함께 2013년에 출범한 부산지부는 부산바다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마음과 함께 2개의 지역대와 180명의 대원들로 시작하였다. 7년이 지난 현재 11개 지역대와 정회원 3천 여명에 이르는 대원들을 영입하면서 명실상부 부산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입지를 굳혔다. 부산지부가 이처럼 봉사자들을 대거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보다는 봉사활동을 하는 소규모 단체를 찾아가 영입을 제안한 데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곳 부산은 해양사고의 위험 역시 항상 도사리고 있는 도시이다. 이 때문에 전문 잠수요원은 물론 바다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봉사의 핵심이다.





항만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수중 전문 구난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부산지부는 이곳을 찾아가서 경력이 오래된 산업잠수사들을 영입하여 해양특수구조대를 발대하였다. 산업잠수사는 수중 교각설치는 물론 부두 및 방파제 축조, 해난구조, 선박 접안시설, 유조선터미널 시설 건축 등 해저 깊은 곳에서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바닷속 맥가이버라고 불린다. 이처럼 최정예 대원들로 이뤄진 해양특수구조대는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등에 투입되어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문잠수사와 더불어 바다와 친숙한 UDT전우회, 해양경찰전우회에 문을 두드려 함께 봉사의 의지를 다졌으며 지역에서 봉사활동 중인 여성대원 20명을 영입하여 수변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수거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역 기업들과 상호협력

부산지부는 대원들이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70개의 부산지역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였다.

대상 기업은 호텔, 병원, 장례식장, 해양레저, 법률 등 다양하며 실제로 파격적인 할인혜택의 적용을 받으며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원들이 많다.

부산지부 역시 가만히 혜택만 받고 있지는 않다. 부산의 대표 관광산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와 MOU를 맺은 부산지부는 케이블카의 바닷속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수시로 나선다. 또한 송도해상케이블카 인근의 다이빙대에도 매년 전문 잠수대원들이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기도 한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현재 공휴일 할인혜택이 없으나 협회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적용하는 등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018년 3월 30일 부산고려병원과 MOU체결하고있는 부산지부

부산바다를 지킨다는 것은...

부산지부 박영철 사무국장의 하루는 남항구조대의 안전점검 메시지로 시작된다. 남항구조대는 송도, 목도, 대대포 등 낚시 집중해역 중심으로 매일 오전 해상순찰에 나서고 있다. 송도 암남공원 갯바위 근처에는 낚시 및 수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지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선을 타고 안내방송을 통해 위험구역에 접근금지 안내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한다. 몇 차례 통보에도 지켜지지 않을 시 해양경찰과 공조하여 조치를 취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조선이 왕래하는 해상에 쓰레기 등이 떠다니는지 확인하며 수거작업도 병행한다.





▲ 페어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산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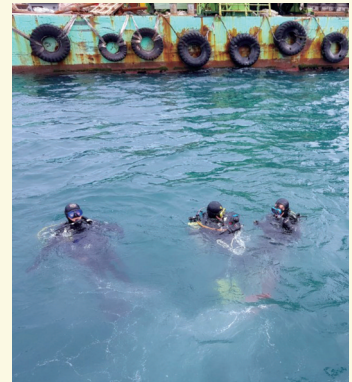
부산지부의 활동실적은 다양하다. 그 중, 2년 전 수중정화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가덕도 대항항을 방문했던 부산지부는 정화작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인근 어민들의 반대에 잠시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다. 이미 어촌계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항만정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유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했지만 부산지부는 포기하지 않고 어민들을 설득하여 수중정화작업을 진행하였다. 막상 들어가 보니 2003년 태풍 매미 때 침몰 된 페어선과 어민들이 버린 페어망 등이 겹겹이 쌓여있었다. 선박 출입항 시 위험요소가 충분히 될만한 엄청난 양이었다.

그 당시 정연승 부산지부 협회장은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국민의힘, 김도읍)까지 관심을 가지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날 부산지부가 건져 올린 쓰레기는 약 50톤에 달하였다.

부산지부의 봉사활동은 해양정화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7월, 영도 앞바다에서 20톤짜리 예인선이 수리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인근에 있던 부산지부 대원이 직접 발견하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어업 중 실종된 어민을 찾기 위한 실종자 수색작업, 대교에서 자살로 의심되는 실종자 수색작업 등 크고 작은 사고에 투입되며 그야말로 몸을 사리지 않고 바다에 뛰어든다.



▲ (앞줄 빨간우비착용)김도읍 의원, (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연승 협회장, 부산지부 대원들과 열악한 날씨 속에서도 봉사활동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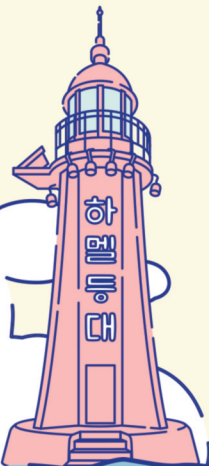


▲ 수중정화작업 중인 대원들

부산지부의 행정적 구심점 역할

해양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부산시 차원에서의 민간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전무하였다. 수상구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부산시를 포함하여 일부지역은 조례제정이 늦어져 현실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부산지부는 대원들이 구조 활동 시 사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지원방안이라도 마련하고자 부산시에 몇 차례 문을 두드렸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부의 부단한 노력과 해양도시인 부산시가 위험을 감수하며 구조활동에 나가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 부산시의 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수난구조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난구조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비용, 유류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도에 위치한 부산해양경찰서 내에 자리잡은 부산지부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해양 관련 종사



자들의 접근성도 어렵지 않으며 특히 부산해양경찰서와 대원들과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양사고 즉시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즉각적으로 부산지부 사무국으로 지원요청을 하며 사무국에서 투입가능한 대원들에게 연락이 간다. 또한 부산해양경찰서에는 중앙특수구조단도 함께 상주해 있어 심해 잠수 등 전문 잠수 훈련을 체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대원들의 개인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지부는 대내외적으로 행정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잠수훈련 중인 부산지부 대원들

부산지부의 다음 행보는?



▲ 초등·중학교 물놀이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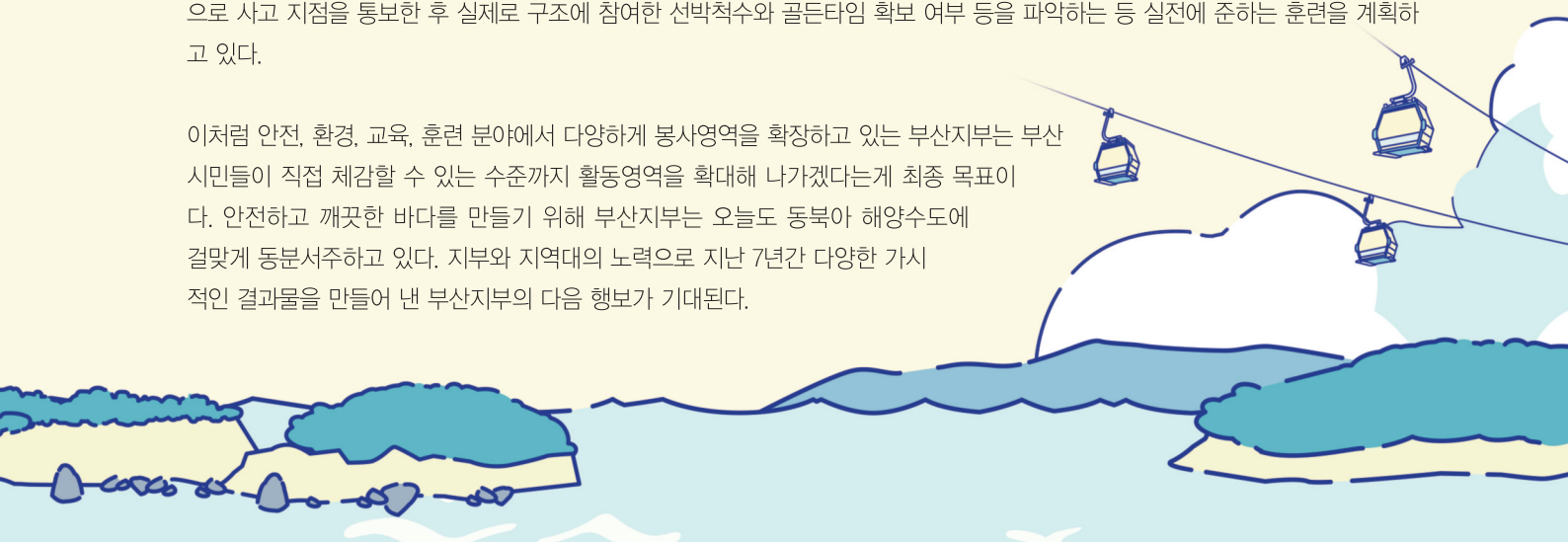


▲ 선상안전체험

부산지부는 부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초등·중학교 물놀이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2년 동안 27회의 교육을 통해 2,185명의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물놀이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예방차원에서 부산시는 부산지부와 함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상안전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실제 선박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65회, 1,74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는 코로나-19사태로 잠시 중단되어있는 상기교육은 상황이 호전될 경우 재개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에 민간해양구조대를 흡수 통합한 부산지부는 소속감 고취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불시에 구조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훈련은 송정에서 광안리, 남항에서 명지까지, 두 곳을 지정하여 배를 띄우고 근처에서 어업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사고 지점을 통보한 후 실제로 구조에 참여한 선박척수와 골든타임 확보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 환경, 교육, 훈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봉사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부산지부는 부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최종 목표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부산지부는 오늘도 동북아 해양수도에 걸맞게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부와 지역대의 노력으로 지난 7년간 다양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부산지부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안전을 부탁 海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들의 이야기 -

대한민국은 50일 이상 지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유례없는 물바다가 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8호 태풍 '바비'가 24.0% 풍속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끼쳤고 이어 지난 9월 3일 부산 남서쪽 해안에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서 영남과 동해안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순간 최대풍속 49.2%로 직접 영향권에 든 한반도는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위력을 실감하였고 정전뿐만 아니라 도심 내 간판, 나무, 창문, 외벽 등이 깨지고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 되었다. 복구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뒤이은 태풍 '하이선'으로 한반도 전체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다.

바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나 혹시나 일어날 지도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가 휩쓸고 간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사고 예방부터 철저히! 사전점검에 나선 지부·구조대

_ 전남서부지부, 전북북부지부, 장흥구조대



▲ 전북북부지부



▲ 전남서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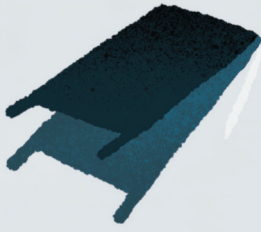


▲ 장흥구조대

지난 8월 26일, 장흥구조대 사무실에는 태풍 '바비' 사전점검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는 당부를 위해 정종순 장흥군수가 방문하였다. 장흥구조대는 사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장흥 군내 항포구를 매일 팀을 이뤄 순찰하며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 발견 즉시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장흥구조대의 이러한 봉사활동은 장흥군청 및 해경에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대비 격려차 군수가 장흥구조대에 방문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순찰 담당 대원들은 현장 순찰 사진을 실시간 밴드(sns)에 공유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태풍을





대비하는 어민들에게는 단단한 고박을 당부하고 직접 선박 상태를 확인한 후 특이점이 될만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전남서부지부 역시 장재구 협회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9월 2일 태풍 ‘마이삭’을 대비하기 위해 목포 평화광장에 모였다. 전남서부지부는 큰 배들이 즐비한 목포광장과 삼학도 등을 순찰하며 선박의 고박상태를 확인하고 통제구역 등을 순찰하며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전북북부지부는 지난 9월 5일 태풍 ‘하이선’ 상륙에 대비,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위험지역을 돌며 야간순찰에 돌입하였다. 대원들은 야간봉을 들고 테트라포드, 피항 중인 어선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민·관이 협동하여 비상근무 체제 돌입!

_ 부산지부, 경기충남북부지부, 서귀포구조대, 마산구조대



▲ 부산지부



▲ 경기충남북부지부

부산지부는 태풍 ‘장미’ 복상에 따라 부산해양경찰과 함께 지난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동순찰에 나섰다. 부산공동어시장, 자갈치 시장, 영도대교 밑과 태풍 및 침수에 취약한 항·포구 위주로 순찰을 돌며 사고예방에 나섰다. 부산지부 소속 각 구조대들은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나섰으며 이후 태풍 ‘바비’ 및 ‘마이삭’ 등의 상륙 대비에도 해경과 합동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나섰다.

서해상에 강한 영향을 줬던 태풍 ‘바비’ 상륙소식에 **경기충남북부지부**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기간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관할 지역의 항·포구 및 위험지역에 대기하며 순찰에 나섰다. 배금란 협회장을 포함한 13명의 구조대장 및 대원들은 평택해양경찰과 함께 공조하며 제부, 정곡항 등을 다니며 선박의 안전상태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 서귀포구조대



▲ 마산구조대

우리나라의 최대의 섬이자 청정 바다를 품고 있는 제주도 역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서귀포구조대**는 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함께 8월 26일, 9월 2일 두차례 태풍 '바비'와 '마이삭' 대비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귀포해양파출소에 모인 대원들과 해양경찰은 점검에 앞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부터 진행하였다. 서귀포 법환항부터 시작된 점검은 하효항까지 이어졌으며 주차되어있는 차들은 미리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출입통제 안전바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태풍에 앞서 바람이 점차 거세지자 조난 직전의 낚시객을 구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태풍 '마이삭'의 피해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들려온 태풍 '하이선'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마산구조대**는 해양경찰과 함께 마산항에 정박중인 선박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마산구조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창원해양경찰과 함께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뜬눈으로 재난 상황을 함께 했다.



▲ 장흥구조대

사고수습에도 우리가 나선다.
 _ 울산지부, 강원북부지부, 장흥구조대

태풍의 위력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침수 선박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의 우리 대원들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사고 접수 후 수습에 나섰다.

지난 9월 3일,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삭금항에 피항중이던 소형선박 '파라호'가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장흥구조대**가 출동하였다. 같은 시각 대리항에서도 태풍피해를 입은 '삼광호'가



안전을 부탁 海



침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비상체제를 유지하던 장흥구조대는 즉시 두팀으로 나뉘어 두척의 침수선박 모두 인양하는 쾌거를 이뤘다.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광활한 동해바다를 지키고 있는 **강원북부지부** 역시 태풍이 지나간 현장 수습을 위해 분주했다. 지난 9월 3일 '마이삭'의 영향으로 속초 장사항에서 침수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일민 협회장을 비롯한 8명의 대원들이 출동하였다. 바닷물 속에 잠겨버린 어선을 인양하기 위해 지부의 어선 1척과 크레인, 잠수장비 등을 동원되었다.

남해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10톤급 바지락 어선이 울산 효성공장 뒤편 내수면에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9월 9일 **울산지부**가 출동하였다. 울산남구조대 최진식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울산지부는 지난 8월 14일 장기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천천일대에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울산지부 소속 회원들 뿐만아니라 울산재난전문자원봉사단 등 여러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피해를 입은 농가의 폐기물 수거 및 시설 복구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봉사단체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다.



▲ 강원북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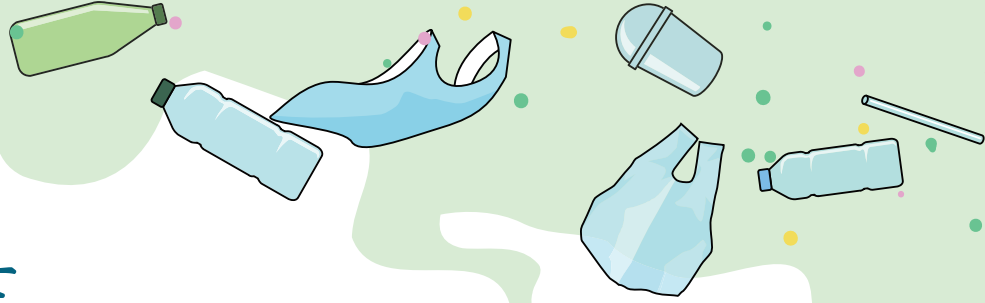


▲ 울산지부

이번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부푼 하계휴가에 대한 꿈을 접었다. 코로나-19사태 뿐만아니라 연일 쏟아지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해외는커녕 국내 휴양지조차 언감생심이다. 우리협회 대원들 역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근무는 일찍 접어두고 재난상황에 대한 비상대비 상태로 전환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건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비록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날들은 드물었지만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이 고비를 넘겨 다음 휴가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을 부탁 海



태풍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선 울산지부 코로나-19 드론방역도 함께 실시



▲ 해양정화활동을 위해 선목항에 모인 울산지부

지난 9월 12일, 울산지부는 울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울산 선목항 일원에서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태풍 '마이삭'부터 '하이선'까지 연이은 태풍으로 해양쓰레기 부유물 때문에 어선 입출항이 어렵다는 어민들의 민원이 접수돼 금번 정화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양이 워낙 많은 만큼 울산지부를 비롯하여 국제라이온스355-D지구, 울산 남구 고래박물관 등 지역 기관들의 참여도 함께 이끌어 내어 총 80여명이 대대적인 해양정화활동에 나섰다.

금번 정화작업에는 연안구조정, 고무보트 2척, 중장비 및 차량 4대가 동원되었으며 울산지부 전문 다이버 10명은 수중에서 태풍에 휩쓸려 유실된 폐어망 등을 수거하면서 이날 건져 올린 쓰레기양만 5톤에 달하였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울산지부에서 지난 7월에 발대 한 흰수리드론수색대가 함께하였다. 총 5대의 드론을 투입시켜 선목항 일원 사각 지대 위주로 드론을 띄우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발견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또한 낚시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나섰다. 이번에 투입된 방역드론은 5분 만에 3천 평 규모의 방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흰수리드론수색대는 금번 활동을 시작으로 방역이 어려운 선박 등도 드론을 투입하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지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축소하였지만 지난해까지 울산 관내 40개 항·포구를 1년에 평균 12차례 해양정화활동을 진행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만들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울산 대표 봉사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장기간의 폭우와 홍수,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실감하며 환경문제에 곤두서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된 지금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 마스크 폐기물 등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로 여전히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국의 우리 대원들은 정부지침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바다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등 어렵게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부·지역대 해양정화활동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 제39호

▲ 경남서부지부, 도남도 일원 수중정화활동



▲ 장흥구조대, 민·관·군 수중·수변정화활동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 제38호

▲ 경남서부지부, 용남면 대방포 앞 해상 수중정화활동



▲ 울산지부, 제천항에서 2020년 바다속 폐기물 수거작업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 제37호

▲ 경남서부지부, 죽림해변 수중·수변정화활동



▲ 전북북부지부, 진포 해양테마공원 일대 환경정화활동



▲ 경북특수구조대, 용한리신항만 수중·수변정화활동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 제36호

▲ 경남서부지부, 죽림만 해변 불가사리 퇴치작업



▲ 부산지부, 영도 봉래항 수중 및 해안정화활동



▲ 창원구조대, 진해구 이동항 수중정화활동

국내 뉴스

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까지 확대로 어선 안전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여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보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척당 총 5개 보급(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및 취사구역에 각 1개와 기관실에 시각경보기 1개 추가)

연안어선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여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태풍 · 풍랑 등 기상특보 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8월 2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통합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그간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어선사고건수: ('15)1,461건 → ('16)1,648 → ('17)1,778 → ('18)1,846 → ('19)1,951

※ 그동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는 법률이 아닌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고시)」 및 「선박통제규정(훈령)」 부령·고시를 통해 규정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입항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2019년 8월 27일에 제정하였으며, 올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법률과 함께 본격 시행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선 안전관리 책무가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중장기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어선안전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변화 양상과 서해5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해5도 접경해역의 안전조업관리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해역의 특수성에 따라 서해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 주변어장에 대해 군이 직접 어선의 출입항 통제와 안전한 조업지도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안보 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행정기관 중심으로 통제·지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태풍특보, 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겨울철 풍랑이 거셀 때 30톤 미만 어선은 사고가 잦고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겨울철 풍랑주의보 시 출항 제한 어선의 톤수를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선단(船團) 조업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풍랑특보 및 태풍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의무도 강화*하였다.

※ (현행) 1일 1~3회 위치보고 → (개선) 1일 1~3회 위치보고 + 풍랑특보(매 12시간 마다), 태풍특보(매 4시간 마다)시 추가 위치 보고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법률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우리 어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올 가을 바다 위 안전 · 방역 모두 지킨다!

가을철 사고다발유형, 기상악화, 산재, 코로나19 등 취약요인 집중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 가을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월 1일(화)부터 11월 30일(월)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가을철은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추석명절에 따른 연안여객선 운항빈도도 늘어나는 반면, 태풍 등 기상변화도 자주 발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15~'19) 통계를 보면 가을철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관련 통계자료]

- ※ 출어선 현황('15~'19): 가을(766만척), 여름(699만척), 봄(655만척), 겨울(486만척)
- ※ 낚시어선 월평균 이용객('19): (평균) 40만명 → (가을) 64만명(59%↑)
- ※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20.9.29.~10.4.) 중 연안여객은 평시 대비 141%(17만명→41만명) 증가, 여객선 운항은 14% 증회운항(4,672→5,305회, 633회) 전망
- ※ 가을철 전체 입출항 선박('19) 중 위험물운반선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 올해 11~13개 태풍 중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기상청)
- ※ 해양사고 발생('15~'19): 가을(31%) > 여름(27%) > 봄(23%) > 겨울(20%)
- 인명피해('15~'19): 가을·겨울 각 167명, 봄 135명, 여름 94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가을철 운항이 많은 선종의 사고다발유형을 중점관리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선박·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운항이 빈번한 3대 선종은 사고다발유형*에 따라 중점관리한다.

※ ①어선(낚시어선 포함): 산재·기관사고, ②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운항·기관사고, ③위험물운반선: 산재·화재·충돌사고

어선의 경우, 양망기 끼임 등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8. 24.~9. 18.)을 추진하고, 재해 유형별 예방지침(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여 지도를 실시한다.

연안여객선 및 레저·마리나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162척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9. 7.~18.)을 실시하고, 최근 신설된 마리나선박 출입항 기록관리,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 이행실태 등도 철저히 점검(9. 1.~10. 30.)하여 여객의 안전을 엄격하게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물운반선은 화재 및 충돌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선박 내 폭발 위험구역에서의 방폭장치 사용을 의무

화하고,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이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충돌자동예측 경보기능 등 보유) 보급을 시작함과 동시에 화물선-어선 간 충돌방지 가상현실(VR)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상악화가 예상될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상악화 예보 시 수협이 조업정보알리미 앱 등을 통해 어업인 등 종사자에게 실시간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또한,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풍랑·태풍특보 시에는 강화된 어선 위치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기존 해역별 위치보고에 추가로 풍랑특보시 매 12시간, 태풍특보시 매 4시간마다 위치보고

아울러, 태풍이 오기 전에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자체안전관리계획 최신화 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3>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바다 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선박(여객선 등)·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외항선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선박 원격검사를 내항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항·포구에서 ‘출항 전 기관정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히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이 구멍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한 제도(어선 안전조업법 시행, 2020. 8. 28.)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마련한 예방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국내 뉴스

해양경찰청, 민간단체의 청렴한 계약 문화 확산 위해 나서

바다 관련 민간단체 활용 위해 「청렴계약 안내서」 제작·배포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바다와 연관된 민간단체에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해 청렴하고 안전한 해양 문화 확산을 선도한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국가기관은 불공정 또는 부당 거래를 근절하고 청렴계약을 이행하고자 201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문화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목표로 청렴계약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 관련 기업·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해양경찰청은 「청렴계약 안내서」를 제작해 해양경찰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청렴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해(海)야 안전해(海)요’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8개 해양·수산 관련 민간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 공동 업무 협약 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수상레저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이들은 안내서 제작에 동참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수용성을 높여 그 의미를 더했다.

협약 단체는 앞으로 「청렴계약 안내서」에 따라 공정 계약을 이행하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의 적용에 대하여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청렴 보유 홍보 자원을 통해 많은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 문화를 통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이들 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해 출항식’을 개최하는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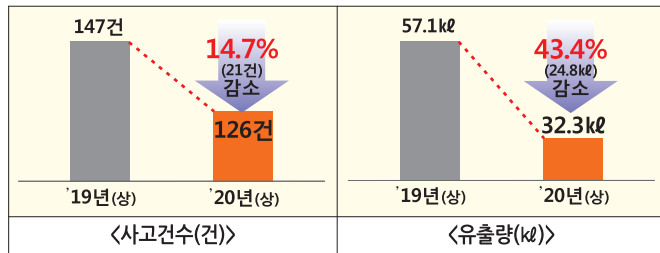
국내 뉴스

해양경찰청,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해양오염 약 43% 감소

유출 사고 적극 예방과 선박 통항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해역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양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43% 감소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상반기 해양오염사고는 126건이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32.3㎩가 바다로 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7건, 유출량 57.1㎩과 비교해 21건, 24.8㎩ 줄었다.



상반기 오염사고를 분석해보면, 원인별로는 충돌·좌초·침몰·전복 등과 같은 해난사

고가 43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주의, 파손, 고의 순이다.

오염이 발생한 유출원별로는 기타선박에서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어선, 화물선, 유조선, 기름저장소 등 해양 시설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 관할 해역별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순으로 사고건수와 유출량이 많았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인 부산, 울산, 여수, 통영에서의 오염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의 52%며, 부산과 여수에서의 유출량이 전체 유출량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해상 물동량이 집중돼 선박 통항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해양오염 사고 및 유출량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선제적인 예방을 꼽았다. 특히, 선박 사고 등으로 연료유와 같이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높을 경우 신속히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해상 유출을 차단해 약 322㎩의 해상 유출을 예방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경기 악화로 대형 선박의 통항량이 감소하면서 대형사고 발생이 저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국가·공공·민간이 적극 협력해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양경찰청]

국내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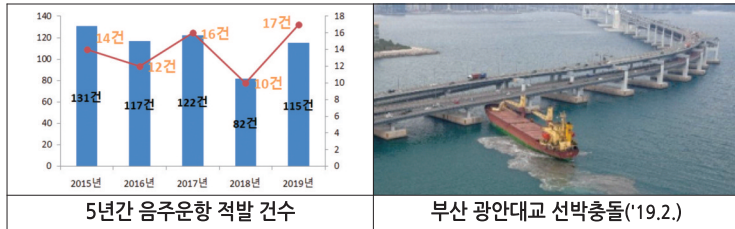
바다 위의 음주운항, 이젠 인공지능 기술로 잡는다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신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신설한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567건, 사고건수는 69건으로,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2월 부산 광안대교에 선박이 충돌한 사고도 음주운항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광안대교 수리 등 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두 달 가까이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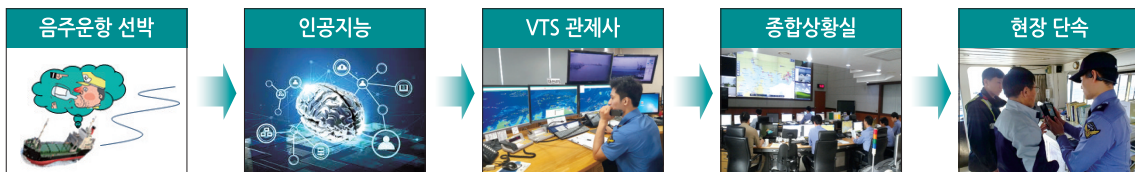


부산 광안대교 선박충돌('19.2.)

넓은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자동차 음주측정과 같은 단속 방식을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며, 관제센터에 수집되는 단순 레이더 정보만으로 음주운항을 가려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신설된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VTS 시스템에 수집되는 선박항적 등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지그재그 항해 등 음주운항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과속, 항로이탈 등을 인공지능이 분석·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22년 5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이 개발되게 되면 음주운항, 과속, 항로이탈 정보가 관제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게 되며 관제사 확인을 거쳐 관할 해경서 종합상황실·함정 등에 통보,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자동탐지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바다 위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양경찰청]

협회교육안내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0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최초접결지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17호 강의실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됩니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협회교육안내

2020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요원 22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교육안내

2020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0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020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0년 1월~ 12월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성화, 사진2매, 수영복, 수모, 수경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해양안전 · 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 · 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홍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협회후원안내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오프라인 전국 판매 1위!
다양한 산업안전제품과 충분한 재고 확보!

호흡보호구

3M 방진마스크



8710L

9913K

8955K

9332K+

방진2급

방진1급

방진특급

3M 방독마스크



7502면체+6001정화통
(유기용제 조합)

6800면체+6006정화통
(복합가스 조합)

3M 송기식 마스크



SIGMA-2

전신보호복

Level D - Type 5,6

3M MG2000

Type 5 & 6 (EN340)



EN1149 EN14126 EN1073



Level C - Type 3,4

3M 4570

Type 3,4,5&6 (EN340)



EN1149-5 EN14126-2008 EN1073

3M MC3000

Type 3,4 & 5 (EN340)



EN1149 EN14126 EN1073



보안경



3M AP-300 Series

3M SF-300 Series

3M OX 1000 / OX 2000

3M 332AF / 334AF

장갑

다목적 작업 장갑

다목적/경작업용
3M 슈퍼그립 200



배임보호/중등작업용
Ansell 11-528



배임보호/중등작업용
3M 543, 553



일회용 장갑

니트릴
100PCS



라텍스
100PCS



Ansell 내화학 장갑

Solvex® 37-176
니트릴



AlphaTec® 87-224
니트릴 / 네오프렌



AlphaTec® 08-354
네오프렌



연마/절단 제품

14인치 프리미엄
푸른돌 절단석

- 스텐레스 스틸용
- 알루미늄
- 지르코니아



베벨 디스크



큐비트론II 플렉시블
그라인딩 휠

- 연마/스텐레스용
- PSG 미네랄
- 방수 +36, +60, +80 (4인치)



전동그라인더 (4CG-2)

- 절단 및 연마 작업
- 720W / 방호가드 / 4인치 전용



접착 스프레이 제품



그래픽 아트 #77
천, 종이, 필름 등 접착
용량 : 455ml



고강도 접착제 #99
고내열성 강한 초접착
용량 : 455ml



윤활방지제
코팅, 녹방지
용량 : 230g

주방·청소용품



MULTI
공식대리점

(주)삼호에스엔씨

TEL. (051) 809-1333 | FAX. (051) 809-8460

부산시 강서구 공항로 265번길 13-15

NAVER

GO스토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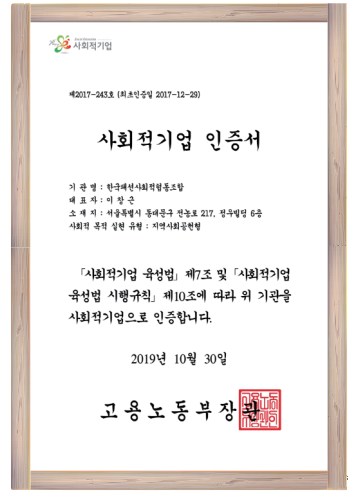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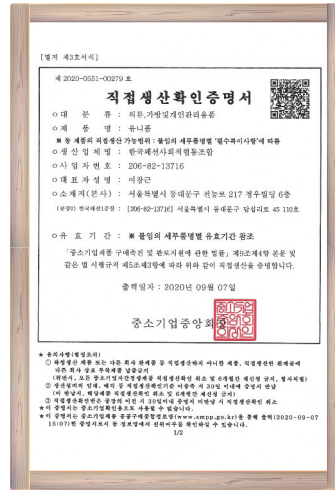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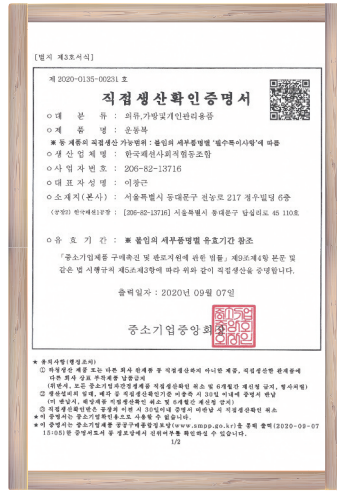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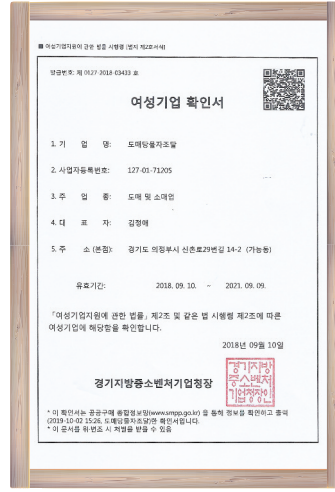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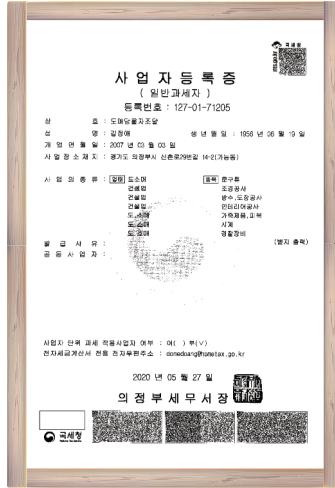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앞서가는 기업

도매당물자조달



단체복, 근무복, 경찰복, 구조복, 퓨마, 프로스펙스, 썬필드, 츠리닝, 모든 피복 직접생산
경찰장비, 행사용품, 기념품, 상패, 명패, 시계, 가죽제품, 관서기, 태극기, 관공서기



회사명. 도매당물자조달 / 대표자. 김정애 / 사업자등록번호. 127-01-71205 / 대표전화. 1544-8745
팩스. 02-6455-8745 / 통신판매업 신고. 의정부-0506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29번길 14-2
E-mail. 120@hanmail.net / 정보관리책임자. 영업부 팀장 이재우 (120@hanmail.net)